

개발센터

2004년 10월 12일 개최된 개발센터 운영이 사회에서는 2005~06년 예산안과 외부협력사업전략을 논의하였다

은 2005년도 예산에만 적용되는 잠정예산임을 감안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 2005~06년 예산

Katseli 국장은 캐나다, 덴마크의 탈퇴로 약 30만 유로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나 2005년도 사업을 2004년도 수준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국이 제공할 자발적 기여금을 2005년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국은 자국의 자발적 기여금이 2005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다수 국가가 동 제안을 지지함에 따라 2005년도 잠정예산은 2004년도 수준인 400만 유로로 합의되었다.

멕시코는 자국의 분담금이 1997년 1.8%에서 2004년 6.7%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번에는 상기 사무국안에 동의하나 2006년도 분담금은 새로운 분담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페인은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 대표는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의 탈퇴로 한국이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앞으로는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무국의 제안

2. 개발센터의 협력사업전략

사무국은 회원국 가입기준(상호 이익과 참여능력)과 향후 후보 회원국 리스트(①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다자무역협상 주도국, ② 태국, 나이지리아 등 역내 주요국, ③ 볼리비아, 베트남 등 개혁지향 저소득국, ④ EU 신규가입국 등)를 설명하면서 태국의 개발센터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문의하였다. 회원국들은 태국의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사무국 전략문서의 기본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후보 회원국 리스트에 중동 국가를 포함하고, 센터의 협력사업전략과 개발 클러스터내 다른 조직의 협력사업전략간 연계성과 일관성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장점을 살린 고유의 협력사업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대표는 후보대상국가 리스트를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이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되어야 하며, 글로벌 포럼, 정책대화 등 협력사업의 수단(tools)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태국이 개발경험과 함

께 경제위기극복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른 개도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의 개발센터 가입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3.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신설 문제

사무국은 현재 무역, 투자, 지속가능발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포럼 외에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 포럼이 창설되면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회원국이 지지함에 따라 포럼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권해룡 주OECD대표부 참사관

hrkwon@mofat.go.kr】